

<제 54 호>

2022 년 1 월 21 일

<아시안에 대한 인종혐오실태 조사>

이보고와 지난 5 년동안 활동을 함께 해 오고 있는 시민참여센터(KACE)는 아시안에 대하여 일어나고 있는 인종혐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뉴욕과 뉴저지 도시지역 한인사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참여센터는 이보고 TF 에서 수고하고 계신 정청세 박사 (Chungse Jung, Ph.D. Binghamton University) 가 포함된 4 분의 전문 연구진 (Seon Mi Kim, Ph.D.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Yunju Nam, Ph.D. University at Buffalo, Eun Jeong Lee, Ph.D., Asian American Resource and Information Network, Inc) 을 구성하여, 2021 년 10 월 부터 12 월 까지 뉴욕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노인, 자영업자, 청년, 총 26 명을 대상으로 개인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라마포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공식적인 자료로 사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인들이 인종 혐오 사건을 경험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법 집행 기관 그리고 지역 시민 단체가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아시아인 정서와 혐오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이론적, 실천적 기반이 되는 실증 연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인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수행된 이번 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내용들입니다.

ASIAN HATE AND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NEW YORK METROPOLITAN AREA: A NEED ASSESSMENT AND ACTION PLAN DEVELOPMENT

반아시아인 혐오와 한인 사회: 뉴욕 대도시권 대책 마련을 위한 한인 공동체 실태 조사

연구진

Chungse Jung, Ph.D.
Binghamton University

Seon Mi Kim, Ph.D.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Yunju Nam, Ph.D.
University at Buffalo

Eun Jeong Lee, Ph.D.
Asian American Resource and
Information Network, Inc.

본 연구는 해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시민참여센터(KACE)의 후원으로 수행되었음.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포재단이나 시민참여센터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하며 연구진의 독립적인 의견임.

연구 목적

팬데믹 기간 동안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많은 아시아인들이 인종 혐오를 경험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법 집행 기관 그리고 지역 시민 단체가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한인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수행된 이번 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한인들의 반-아시아인 혐오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과 대응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한인 사회의 이해를 높인다. 둘째,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반-아시아인 혐오에 대처하는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행 계획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센터는 사회복지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연구자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뉴욕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노인, 자영업자, 청년, 총 26명을 대상으로 개인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라마포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승인). 본 보고서는 면접 조사 자료를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심층 면접 참여자 특성

연령: 50대, 60대, 70대

News Letter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KACE 시민참여센터
www.kace.org

연락처: 646-450-8603

3/6

연락처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Center

시민참여센터

718-961-4117

info@kace.org

www.kace.org



Stop Asian Hate Crimes Rally at Binghamton University, NY.

2021년 3월 27일.

- ✓ 평균 연령 56 세
- ✓ 노인과 자영업자들의 평균 미국 거주 기간 28 년 (청년 집단 제외)
- ✓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한국인" 13 명, "한국계 미국인" 12 명 응답. 무응답 1 명
- ✓ 영어 능숙도에 대한 질문에 "잘 못한다" 또는 "전혀 못 한다" 응답, 14 명 (54%)
- ✓ 미국 생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편" 응답, 22 명 (85%)

노인들의 경험

팬데믹 기간 상황

팬데믹 초기, 가족, 친구들과 거의 교류하지 못함. 노인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참여자도 있었음. 팬데믹 중반 이후 애야 직계 가족과의 왕래를 재개한 참여자가 많음. 정부 방침을 잘 따르며, 백신 접종도 거의 완료. 팬데믹을 거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부정적 생각이 증가하였다고 말한 참여자가 많음. 동영상 시청 시간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경우가 많음.

반-아시아인 혐오 경험과 원인 진단

직간접적으로 반-아시아인 혐오를 경험한 경우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반-아시아 혐오 정서를 접하는 경우가 많음. 여성의 경우 반-아시아인 혐오 범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고, 혐오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거나 낯선 사람들을 피해서 통행함. 코비드 때문에 아시아인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나빠졌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함. 혐오 범죄 경험 혹은 목격 시, 신고나 문제 해결에 언어가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있음.

반-아시아인 혐오 원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 차별과 혐오 행위를 행위자의 개인의 인성 문제로 파악하고 사회 구조적인 인종 차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한 참여자가 다수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서 그 요인을 찾는 경우도 있음. 인종 차별로 인식하는 경우에도 불가피성에 대해 언급함. 예외적으로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평등 문제를 언급한 참여자도 있음.

공동체의 노력과 해결 방안: 회의, 성찰, 인식 개선

반-아시아인 혐오 정서와 인종 혐오 범죄의 해결 가능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참여자가 많음. 한인의 인종 차별에 대해 지적하는 경우도 있음. 한인의 주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타인종의 한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차별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많음. 흑인 등 타인종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 모두 존재함.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와 역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림.

자영업자들의 경험

팬데믹 기간 상황

팬데믹 초기 문을 닫거나 영업 시간을 단축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책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긴 경우가 많음. 자격 미달이나 지원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여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도 있음. 시/주정부의 규제 이전에 종업원에게 백신 접종을 권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한 참여자가 많음.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방역 및 보건 대책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음.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음.

"코비드 때문에 동양인들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안 좋아졌어요." - 노인

"팬데믹이 왔을 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어요. ...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요." - 자영업자

"I so obviously feel very threatened." - 청년

News Letter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KACE 시민참여센터
www.kace.org

연락처: 646-450-8603

"[인종 혐오 범죄를] 당한
사람은 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 노인

"어쩔 때 보면 동양인들이
욕먹을 수 있는 행동을
자주 해요." - 노인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낫죠. 맞서면 안 돼요." -
자영업자

"지역 사회를 통해
한국인들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해요." - 노인

반-아시아인 혐오 경험과 대응

팬데믹 기간 가게 앞에 침을 뱉거나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경험을 한 참여자들이 있음. 가족이 폭행당하거나 본인이 차별받았지만 신고하지 않고 공론화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또한 차별과 혐오 행위에 대하여 개인적, 상황적 요인을 언급하는 참여자가 많음. 아시아인 혐오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가게 문을 일찍 닫는 경우가 있음.

공동체의 노력과 해결 방안: 한인 간 단결, 구별, 위상 강화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인 간의 연대에는 적극적이지 않으나, 한인들 간의 유대와 단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한인이 규범을 잘 준수하고 사회의 모범이 됨으로써, 다른 아시아인과 구별되고 위상이 높아지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음. 아시아인 혐오 반대 운동(Stop Asian Hate)에 대하여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이며, 운동의 효과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참여자도 있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이 엇갈림.

청년들의 경험

반-아시아인 혐오 경험과 대응

반-아시아인 혐오 정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함. 아시아인 비하 발언/욕설을 들어본 경험이 거의 공통적으로 있으며, 인종 혐오 범죄 증가 상황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한 참여자가 많음. 특히 여성 참여자의 경우 혐오 범죄에 공포를 느끼는 정도가 높았으며, 남성 참여자의 경우에도 여성 가족 구성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음. 차이나타운이나 케이타운 등 아시아인이 모이는 장소가 위험하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최루액 분사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음. 미국에서 인종주의가 개선되지 어렵다는 견해도 있음.

공동체의 노력과 해결 방안: 차별에 대한 인식, 교육, 인종 간 연대

한국인계 미국인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반-아시아인 혐오에 대하여 다른 아시아인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참여자가 많음. 흑인들의 투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그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대답한 참여자도 있음.

참여자 대부분 아시아인 혐오 반대 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함. 아시아인 혐오 반대 운동이 아시아인 혐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가 많음.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부분이 동의함. 아시아인/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와 역사에 대한 내용을 초중고 정규 교과 과정에서 거의 배운 적이 없다고 대답한 참여자, 아시아계 이민자의 역사에 대해 공부한다면 아시아인에 대한 이해가 증대될 것이라고 대답한 참여자, 교육 체계가 유럽 중심적이라고 말한 참여자가 있음. 핵심 교육 과정에 아시아인 권리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아시아인의 차별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주장한 참여자도 있음.

분석 결과 요약

-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팬데믹 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반-아시아인 혐오를 경험하였으나, 반-아시아인 혐오와 아시아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법에서는 참여자 개인이 미국 사회 내 지위와 인생 경험에 따라 큰 견해차를 보임.

"[한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같이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 특히 흑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해요." -
노인

"Bring out more
awareness of these issues.
... Media presence is so
important." - 청년

"Stop Asian Hate
movement will help
decrease hate crimes." -
청년

News Letter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KACE 시민참여센터
www.kace.org

연락처: 646-450-8603

5/6

"We definitely can learn lessons from their [Black people's] struggle, but also work with them." - 청년

- 여성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아시아인 혐오 범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고 피해 가능성에 대한 공포도 컸음.
- 주로 이민 1 세대인 노인과 자영업자는 반-아시아인 혐오를 개인적인 일탈로 보거나 팬데믹의 특수한 상황을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반-아시아인 혐오 문제 해결을 위해 타인종의 한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봄.
- 노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한인의 주류 사회 진출과 모범적인 사회 생활을 통해 한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한인 간의 유대와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일반적으로 이민 2 세대인 청년은 반-아시아인 혐오를 사회 구조적인 인종 차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청년은 반-아시아인 혐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운동과 캠페인을 접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참여 의지도 강함. 특히 한인 공동체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한 이민 1 세대와는 달리,
-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소수 인종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봄.
- 청년은 아시아인 차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제도 교육 내에 아시아, 아시아인 이민 역사에 대한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part." - 청년

"Education system is very Eurocentric." - 청년

"Core curriculum there's nothing about Asian People right." - 청년

실행 방안 제안

아시아계 차별, 아시아계 이민 역사에 대한 교육: K-12 정규 교과 과정 편입

반-아시아인 혐오가 개인적, 상황적 인종 차별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차별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인의 차별과 권리, 투쟁의 역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와 역사에 대한 교육이 K-12 정규 교과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경험을 집합적 서사로 제도화하는 과정은 아시아인 간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첫걸음인 동시에, 비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아시아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인 사회 내 인종 차별, 인종 혐오에 대한 교육: 한인 사회 조직과 시민/권익 단체 간의 연계 강화
직능 협회, 학생회, 경로당, 교회와 같은 종교 조직의 경우, 한인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일차적으로 소속되어 지역 사회내 유통되는 자원과 정보를 확보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한인 사회 조직이다. 한인 시민 단체와 권익 조직은 이들 한인 단체와 연계를 강화하며, 공동 세미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반-아시아인 혐오가 사회 구조적 차별임을 한인 사회 내에 환기시키고 교육해야 한다.

반 아시아인 혐오/아시아인 혐오 범죄에 대한 한인 시민/권익 단체의 적극적인 대응

- 혐오와 차별에 대해 한인 사회 내 자각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 혐오 정서 및 혐오 범죄 예방과 처벌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운동
- 법 집행 기관의 혐오 범죄 처리 과정 감시 활동
- 피해자 보호/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요구
- 피해자, 피해 사업장, 피해 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 조언 활동
- 아시아인 혐오와 혐오 범죄를 담당하는 한인 공동체 기반 법률 지원 및 교육 단체 조직(기금 조성)

소수 인종 단체와의 연계와 연대

반-아시아인 혐오와 소수 인종 차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치권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수 인종 공동체 기반 시민 단체/조직들 간의 연계와 연대가 필요하다.

News Letter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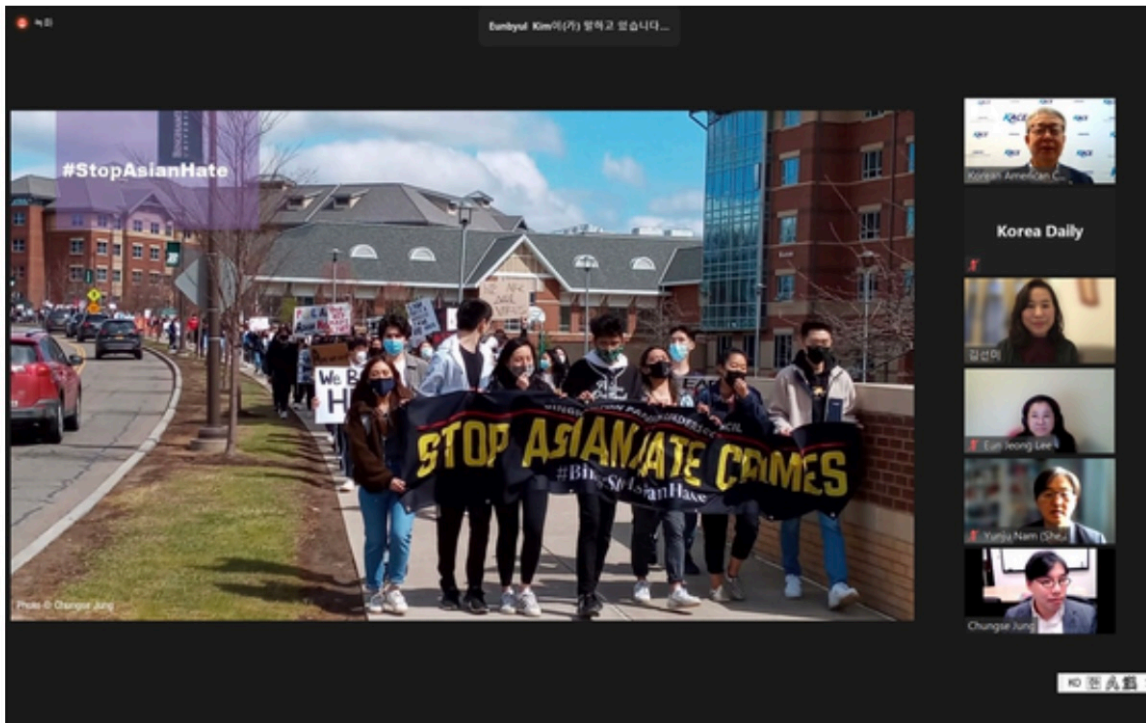
KACE 시민참여센터
www.kace.org

연락처: 646-450-8603

6/6

반-아시아인 혐오 연구 지원

한인들이 경험한 반-아시아인 혐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적, 질적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한인 사회 전반의 경험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성을 가진 표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 조사가 시급하며, 다양한 한인 집단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질적 연구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참여센터(KACE)는 1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반아시아인 혐오와 한인 사회: 뉴욕·뉴저지 대도시권 대책 마련을 위한 한인사회 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김동찬 KACE 대표와 김기선미 뉴저지 라마포칼리지 교수, 이은정 AARIN 대표, 남윤주 버펄로 뉴욕주립대(SUNY) 교수, 정청세 빙햄턴 SUNY 한국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연구진들이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KACE) 기자회견 화면 캡처]